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 20~30대의 청년 법우들로 구성된 '전국연합청년합창단'이 BTS그룹의 대표곡인 'Dynamite'를 패기 넘치는 화려한 춤과 함께 부르며 열광의 무대를 선보였다.

국내 최고 공연장에 울려퍼진 대행스님 '선법가'

2022 롯데콘서트홀 '한마음 희망음악회' 현장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런던심포니 등 세계적인 유명 교향악단과 연주자들이 내한 공연하는 등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서울 잠실 롯데 콘서트홀에 대행 스님의 선법가가 울려 퍼졌다.

안양 한마음선원은 10월 23일 오후 4시와 8시 두 차례에 걸쳐 '한마음 음악회'를 공연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한마음선원 승단으로 구성된 60여 스님들이 법고와 파이프오르간 반주에 맞춰 '일체제불의 마음'을 노래하며 문을 열었다. 승단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는 대행 선사의 '일체제불의 마음' 육성 법문이 먼저 흘러나와 관객들이 귀를 쫑긋 세우며 집중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본격적인 첫 무대는 1984년 창단 이래 1994년에 구성된 거사 합창단과 함께 100여 혼성 '선법합창단'이 등장해 '우리들의 마음' '깊은물 돌고돌아' 등을 선보였다. 음성포교를 수행 재료로 삼은 원력이 모아져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는 선의 음파는 또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본원 어린이 선법합창단이 무대에 모습을 보이자 객석이 술렁이며 밝은 미소와 웃음이 터져 나왔다. 70여 천진불들은 깜찍한 율동과 함께 '바람의 멜로디' 'A Whole New world(영화 알라딘 OST)' '마음밭 농사'를 연달아 불러 관객들의 열띤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진 무대는 보살 합창단원 활동을 마친 단원들이 2008년 다시 뭉쳐 결성한 '한뿌리 선법합창단' 순서였다. 보다 깊어진 수행의 묘미를 한층 더 원숙한 목소리로 '정신 발전의 길' '그 마음 그대로' 등 두 곡을 음성공양 했다.

1부의 가장 활기 넘치는 무대는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 20~30대의 청년 법우들로 구성된 '전국연합청년합창단'의 무대였다.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의 선법가에 이어 BTS그룹의 대표곡인 'Dynamite'를 패기 넘치는 화려한 춤과 함께 노래해 열광의 무대를 연출했다.

객석과 무대가 하나된 순간이었다. 이날 무대에서는 박준병 오르가니스트의 파이프오르간 선법가 반주도 공연을 즐기는데 한 몫을 톡톡히 했다. 국내 첫 빈야드(홀 중심에 연주무대가 있는) 스타일을 채택, 초대형 파이프오르간 등으로 주목받은 롯데 콘서트홀을 십분 활용한 레퍼토리 구성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거사 선법합창단 중창팀은 바이올리니스트 정기쁨씨의 반주에 맞춰 '나야 나'를 코믹한 율동과 함께 선사해 흥을 돋우웠다. 이외에도 소프라노 황재원이 중량감 있는 음색으로 '무상게송'과 오페라 '잔니 스키키'에 흐르는 '오 미오 바비노 카로(O Mio Babbino Caro)'를 열창하며 무대를 압도했다.

2부는 보살 선법합창단 중창팀이 코리아쿱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 '신아리랑'을 부르며 시작했다. 이어 소프라노 조선형이 '강 건너 봄이 오듯'을, 테너 이정원이 '뱃노래'를, 조선형과 이정원이 함께 '한그릇의 물맛'을 합창했다. 오케스트라가 고즈넉하면서도 잔잔한 호숫가와 같은 반주로 솔리스트들의 맑고 청아한 음색과 울림을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미디어아티스트 김형중이 대행선사의 '뜻으로 푼 금강경' 32품을 미디어아트로 만들어 첫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음악회의 마지막은 모든 출연자들이 무대로 올라 '금강게송'을 합창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공연이 끝난 뒤 이번 음악회의 지휘를 맡은 서윤재씨는 "1년 동안 연습기간을 거쳤지만 코르나로 인해 실제로 연습한 날이 많지는 않았다"며 "일반인들에게 대관도 쉽지 않은 이렇게 훌륭한 공연장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400여 명의 합창단원들이 대행 큰 스님의 선법가를 다함께 음성공양 했다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이 차오른다"고 환희심을 표했다.

합창단원들도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실력을 관객들에게 마음껏 보여주었고, 관객들도 곡이 끝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하며 두시간 동안 한 마음이 되었다.

한편 한마음 선법합창단은 2001년 11월 심장병 어린이 돕기 합창제 '임의 소식'을 필두로 2004년 11월 간암환자돕기 합창제 '그 마음 그대로', 2011년 11월 '일체합창제'를 세종문화회관서 공연했으며, 2014년에는 선법가 30주년 기념음악회 '한마음으로 돌아가네'를 무대에 올리며 희망의 법음을 전해왔다.

안양 한마음선원, 10월 23일 오후 4시 · 8시 공연

일반인 대관 쉽지 않은 공성공양

400여 합창단원들이 무대에 올라 벅찬 감동 선사

'뜻으로 푼 금강경' 미디어아트로 제작해 첫 공개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한 관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모든 출연자들이 무대로 올라 '금강게송'을 합창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한마음선원합창단 서윤재 지휘자의 열정적인 지휘모습.


본원 어린이 선법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깜찍한 율동과 함께 노래를 선사했다.


선원 승단 60여 스님들이 '일체제불의 마음'을 노래하며 음악회의 문을 열었다.


테너 이정원과 소프라노 조선형이 함께 '한그릇의 물맛'을 합창했다.


2008년 다시 뭉쳐 결성한 '한뿌리 선법합창단'이 음성공양을 하는 모습.


혼성 '선법합창단'이 '우리들의 마음' '깊은물 돌고돌아' 등을 노래했다.